

아베 일본 총리 내외를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아베 신조 총리대신 각하 내외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각하의 총리대신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취임 이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나라는 서로 친구가 되지 않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이웃입니다. 이미 양국 국민은 비자 없이 두 나라를 오가고 있으며, 경제·사회·문화·스포츠를 비롯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이러한 발전이 있기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전 총리는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고, 2003년에는 나와 고이즈미 전 총리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가 불거질 때마다 양국관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이제야말로 신뢰와 실천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존중, 그리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함께 열어 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깊이 있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 각별하신 각하께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한·일 양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